

# ‘인간의 탐욕’ 어디까지인지...

### 이라크로 자원봉사 떠나며

한국 JTS 조태경씨  
본지에 자신 심경 밝혀

한국JTS(이사장 법륜은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을 비롯한 4명의 자원봉사자를 이라크로 파견했다. 아래의 글은 자원봉사자 조태경(남, 31) 씨가 8일 요르단 암만에서 이라크로 들어가기 전 자신의 심경을 본지에 밝힌 것이다.

3월 오후 7시에 인천 공항을 출발한 우리는 일본 오사카를 경유해 한국시각 4일 오전 10시 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1만피트 이상의 상공에 펼쳐진 은하세계를 보며 ‘지구’라는 작은 별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오만으로 불거진 ‘지구’의 아픔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탄생한 뒤 하신 말씀, ‘천상천하유 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그 깊은 연기적 세계관을 새겨보았습니다.

4일 오후 10시 암만에 도착한 우리는 현지사업가 황재호 씨와 박노해 시인, 최창모 교수(한국외대 히브리어과)를 만났습니다. 박 시인과 최 교수는 이라크 전쟁이 왜 ‘미국의 석유침략전쟁’이었는지, 이라크의 어린이들과 여성들, 노약자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조태경씨.

을 상대로 한 전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는지, 왜 12년 전부터 경제봉쇄로 인한 ‘총성없는 전쟁’이 진행돼오면서 더욱더 잔악한 민생 파탄과 100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등을 설

명했습니다. 암만 숙소에서 우리는 일본 평화운동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로부터 이라크 현지 정보에 대해 들었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미 당국자들의 통제로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합니다. 안전문제는 전이상황보다 나아졌지만 암만에서 바그다드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마의 길’로 통합니다. 운통 사막지대인 이 길은 미군기에 의한 오인폭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총 길이 885km를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전 문제 해결과 보장 등 면밀한 준비를 하기 위해 며칠간은 암만에서 보낸 뒤, 8일 이라크 바그다드로 들어갑니다. 암만에서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모아두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아내에게

### 내가 진정 평화로운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이렇게 떠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용서하오. 난 이라크 바그다드로 들어가게 될 것 같소. 너무 걱정하지 말길 바라오. 가만히 생각해보니 결국 이번 전

쟁은 내가 일으켰던 것임을 깊이 참회하지 않을 수 없었소. 전쟁을 반대하면서도 공격적인 마음이 내 자신에게 있지는 않았는가, 평화를 외치면서도 나는 진정 평화로운 사람이었는가. 전쟁을 일으키는 폭력

의 뿌리가 내 안에 깊이 자라고 있는 한 나는 평화를 말할 수 없었소. 그러기에 우선 내 자신부터 잘 돌보아야겠소. 부디, 몸조리 잘하고 평안하길 비오.

## 동국대 개교 97돌 기념식 유공자 59명 서훈·표창장

동국대 97주년 개교기념식이 7일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홍기삼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진) 홍기삼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 송석구 전 총장은 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장기근속 교직원 인 권기종(불교학) 교수, 신관호 홍보실장을 비롯한 59명은 표창장과 공로상을 받았다. 동국대는 개교기념으로 탕화, 청

자불상 등 미공개유물을 모아 특별전을 12일부터 6월13일까지 제2전실에서 연다. 김원우기자



# “내원寺와 협의없이 구성된 대안노선 검토위는 무의미”

## 지울스님, 15일 국무총리 조정실에 항의 공문

경부고속철 노선재검토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안에 대한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지울스님은 15일 국무총리 조정실에 공문을 보내 현 노선검토위원회는 민원당사자인 내원사를 기만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강력 항의했다.

경부고속철 경주-부산간 노선 결정을 위한 노선재검토위원회가 19일 1차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과 관련, 지울

스님은 공문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온 내원사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구성된 대안노선검토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달 반이라는 짧은 조사 기간은 자료 검토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며 대안노선검토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스님은 또 “대안을 검토했다는 형식을 갖추는데 급급한 대안노선검토위는 의미가 없다”며 “천성산의 가치를 알리고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전

국 환경단체와의 연대와 지속적인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측과 금강산·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중교대책위는 12일 부산 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 명칭과 위원 구성 등을 합의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 ‘불교와 효’ 세미나 개최 21일, 세종문화회관

부처님의 효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법보신문(사장 각현은)은 지난 15주년을 맞아 21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불교와 효’ 세미나를 개최한다. 황진수 교수(한성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는 월운스님(동국대) 김용환(충북대) 박만연(동아대) 교수가 ‘경전상에 나타난 효사상’ ‘현대사회와 불교의 효실천 방안’ ‘장기이식과 새로운 효사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원우기자



## 인각사 성역화 본격추진

### 추진위 구성, 위원장 성인스님 위촉

민족의 문화유산인 삼국유사가 저술된 인각사 성역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인각사 민족성지 성역화 추진위원회’는 14일 대구 아서원에서 첫 모임을 갖고, 인각사 주지 상인스님을 위원장, 지역 종교계·학계 정재계 등 전문가 8명을 추진위원과 감사로 위촉했다. ‘인각사 민족성지 성역화 추진위원회’는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인각사 성역화에 불교계의 통일된 한 목소리가 없으면

자칫 귀중한 민족문화의 보고인 인각사가 ‘성지’가 아닌 ‘관광지’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역화추진위원회의 향후 활동은 인각사 성역화 작업의 올바른 방향 제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각사 성역화 기본계획에 민족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문화 성지로서 인각사 성역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다. 대구=박원우기자

## 북한산도로 재검토 노선

### 31일께 윤곽 드러날 듯

북한산 관통도로 재검토 노선이 31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노선재검토 연구조

사계획 등을 확정했다. 또 22일에서 23일 양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31일 내부 워크숍에서 재검토 노선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눈 뒤 결과물을 도출할 전망이다. 남동우기자

## 기초건강 공개강좌 개설

### 통도사 성보박물관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법하이) 일반인을 위한 기초건강 공개강좌를 개설한다.

강좌는 6월 2일 오후 1시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부산대 약대 조순희 교수를 초청, ‘몸과 마음의 조화로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성보박물관측은 향후 2-3회 정도의 공개강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 美서도 봉축행사 다채...제등행렬·글짓기 등

불기 2547 부처님오신날 봉축 제등행렬이 11일 뉴욕 맨해튼에서 봉행됐다. 이 행사는 미주 한인 이민 1백주년을 기념해 사찰 연합단체인 미동부승가회(회장 도범스님) 주최, 뉴욕사원연합회(회장 휘경스님) 주관으로 개최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이 참석한 이날 부처님오신날 국제 봉축 제등행렬은 맨해튼 유니온스퀘어가든을 출발, 6 애브뉴를 따라 32 스트리트 한인 타운까지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퍼레이드에 참가한 미 동부지역 뉴욕 불광선원,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한마음선원 등 40여 사찰들은 이미 4일부터 다양한 축하행사를 펼쳐왔다. 김재경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운불편 나눔 콜택시**  
**1588-5532**



## 남북평화통일 및 국민대회합

# 호국영령 수륙 천도 방생대법회



## 호국영령 수륙천도 방생 대법회 권선문

중국 양나라 무제가 법운전에서 어느 날밤 꿈에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태·란·습·화 4생과 지옥 아귀등 6도 중생의 고통이 한량없거늘 어찌 수륙재를 배풀어 법계의 모든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고" 모든 공덕 중에 수륙천도재 공덕이 제일이니라고 하는 꿈을 꾸 후 너무나도 꿈이 신기하고 이상하여 당시 큰스님에게 문의 한즉, 부처님의 경전을 모두 열람하여 수륙재문을 편찬 하였습니다.

양무제가 재위중 49번의 수륙천도재를 봉행하여 중국천하가 통일되고 태평성세를 이룬 역사가 있습니다.

2003 계미년에는 새정부가 출범하여 국민 대화합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수륙천도 방생 대법회를 봉행하여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호국 영령과 선망 부모와 일체 유주무주 영혼을 왕생 극락으로 인도하여 국운 융창과 현존 복수 소망 성취를 이루도록 기쁜 마음으로 발심 동참 하시어 안락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불사 동참금

●방생 : 1인 1만원 ●영가 : 1위 1만원

※ 타종단 및 광주, 전남을 제외한 지역은 1만원중 3천원을 본 행사에 접수하시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불기 2547년 6월 4일 (음) 5월 5일(단오) 오전 11시
- ▶장 소 : 전남 무안군 일로읍 화산 연꽃방죽 (백련도량)
- ▶연락처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산 99-7(태고종 중무원)
- ▶전 화 : 062)375-1820 ▶팩 스 : 062)381-0944
- ▶주 최 : 한국불교태고종 광주, 전남중무원
- ▶주 관 : 각종단 사암 및 불교신행단체
- ▶후 원 : 무안군청, 불교방송국, 한국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주간불교신문사

한국불교 태고종 광주·전남 중무원